

36년만의 방문... '광주'를 말한다

5·18 이틀이 있어 광주는 외롭지 않다

미국 더 볼티모어 선 브래들리 마틴

“윤상원은 죽기를 마다하지 않았습니 다.”
브래들리 마틴은 시민군 대변인 윤상원을 부드럽고 찬양했다고 떠올랐다. 그는 “80년 5월26일 윤상원은 처음이자 마지막 기자회견에 참석해 외신기자들을 향해 미국 대사에게 미국의 개입을 요청해달라고 당부했다”면서 “윤상원을 인용한 기사를 올렸지만 다음날인 5월27일 이른 아침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 노만 소프

“80년 광주는 사람들이 서로를 도왔던 지역들로 남겨져 있습니다.”
노만 소프는 1980년 5월21일 광주에 들어왔다. 그때 이미 시민들을 향해 총을 발포한 뒤였다. 시민들은 그를 인근 병원으로 안내했고, 그 곳에는 총을 맞은 남학생과 총검에 찔린 여자 환자가 있었다. 의사는 3명의 환자가 죽었다고 전했다.

미국 저널 오브 커머스 팀 서록

“1980년 내 조국인 미국이 얼마나 광주의 진실을 왜곡했는지 알고 있습니다.”
미국 탐사보도 기자 팀 서록은 1980년 광주 진압 과정에서의 미국의 숨겨진 역할과 한국군대의 민주화운동 탄압 결정에 미국이 연루돼 있음을 밝힌 공로를 인정받아 지난해 5월 ‘ 명예 광주시민’이 됐다.

미국 시카고 트리뷴 도널드 커크

“밖에는 긴 관들이 놓여 있었다. 희생자의 유족들은 관 뚜껑을 들어올리며 사랑하는 사람의 시신을 찾아다니고 있었다. 나는 우리가 인터뷰했던 시위대 중 일부를 다시 만나지 못했다.”
5·18 직후 광주를 방문한 도널드 커크는 현장의 분기지였던 전남도청 옆 나무 아래 놓인 관들을 보며 눈시울을 붉혔다. 그는 덴마크 출신 기자 폴 스페스트럽

<4> 참상 세계에 알린 외신기자들

1980년 5월 ‘광주의 진실’을 세계 곳곳으로 타전했던 외신기자들이 15일 광주를 방문했다. 브래들리 마틴·노만 소프·팀 서록·도널드 커크 등은 19일까지 5일간 광주에 머물며 5·18의 역사를 재증언하는 자리를 갖는다.

“윤상원은 마지막까지 굴하지 않았던 순교자”



군대가 광주를 탈환했다는 뉴스에 묻혀버렸다”고 말했다.
그는 당시 기사에서 “나는 광주도청 기자회견 탁자에 앉아 그를 정면으로 바라보며 이 젊은이가 곧 죽게 될 것이라는 예감을 받았다. 나에게 강한 충격을 준 것은 바로 그의 두 눈이었다. 바로 코 앞에 압박

한 죽음을 분명히 인식하면서도 부드러운 표정과 상냥함을 잃지 않는 그의 눈길이 인상적이었다”고 적었다.
브래들리 마틴은 “윤상원은 탁월하게 응급했고 끝까지 투쟁할 것을 계획했으며 마지막까지 굴하지 않았던 순교자였다”며 “그의 삶과 죽음은 한국 국민들이 군부독재를 7년 후 패망시킬 때까지 싸우도록 고무시켰고 1987년 끝내 민주주의를 성취했다”고 평가했다.

“사람들이 서로 도왔던 기억들 지금도 생생”



노만 소프는 당시 기사를 통해 “기자로서 가장 중요한 일은 시신을 직접 보고 그들의 사망을 확인하는 것이었다. 서울에서 정부는 시민들이 아무도 죽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었다. 이는 광주에 관해 떠돌던 수많은 거짓말 가운데 하나였다고 기록했다.”

그는 “5·18은 희생과 고통의 기억이지만 그때 희생당한 사람들로부터 공동체라는 소중한 유산을 얻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하나의 사건을 소개했다. “광주는 고립돼 있었다. 도시 바깥쪽 도로를 따라 누군가 표지판을 부착했다. ‘철도트랙을 따라 이 길로 가시오’라고. 철도트랙을 따라 조금 떨어진 곳에는 누군가가 항아리를 비치했다. 항아리엔 더운 물 5월 그 길을 걷는 사람들을 위한 물과 바가지가 담겨 있었다.”

명예 광주시민...7년 추적 끝 미국 연루 밝혀



그가 밝힌 5·18의 진실은 ‘미국 정부는 전두환 신군부가 특전사를 동원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미국 동의 없이는 움직일 수 없었다’ 20사단의 광주 투입을 승인해 주는가하면 5월 27일 도청 진압 때도 신군부와 일정을 협의했다’는 것이다. 그는 이 같은 사실을 7년간의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밝혀냈다. 이른바 ‘체로키 파일’이다.
팀 서록은 “오늘날 5·18은 한국 현대사의 교통사고와 비극적인 사건으로 기억될 뿐만 아니라 민주주의의 분수령으로 기록되고 있다. 또 한국 뿐만 아니라 전세계에서 자유와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기 위한 투쟁으로 기록되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역사 전환점이자 민주선언의 시발점”



순과 항쟁 직전 광주를 방문해 열정적인 시위대와 인터뷰를 했다고 한다. 이 중 한 명은 그의 여권을 복사해 ‘프레스카드’를 만들어줬고, 또 다른 한명은 유창한 영어로 기사 작성을 도왔다고 회상했다.
그는 광주항쟁을 현장에서 겪지 못했

다고 한다.
“항쟁이 일어나기 직전 광주를 한 번 방문했고, 5·18 때는 서울에서 기사를 쓰고 있어 직접 겪진 못했다. 도청이 군인들에게 넘어간 직후 다시 찾았을 때 건물은 텅 비어 있었고 그들은 보이지 않았다.”
도널드 커크는 5·18에 대해 “한국역사의 전환점이며, 민주선언의 시발점이 됐다”고 평가했다. <끝>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영암 자동차경주장 가는 길 교통사고 해남 출신 레이싱모델 주다하씨 사망

해남 출신의 레이싱모델 주다하(여·31·사진)씨가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다.
15일 영암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40분께 영암군 삼호읍 한 교차로에서 정모(34)씨가 운전하던 카니발 승합차가 유모(31)씨가 몰던 카니발 승합차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유씨의 차량에 타고 있던 레이싱모델 주씨가 다쳐 목포의 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고, 두 차량 운전자를 포함해 5명이 중·경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주씨 등 일행이 이날 열린 ‘2016 아시아 스피드페스티벌’(AFOS)에 참가하기 위해 영암 국제자동차경주장(KIC)으로 가다 사고가 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주씨는 지난 2012년 제7회 아시아모델 시상식에서 최고 레이싱모델상을 수상하기도 한 유명 레이싱모델이다. 지난 2008년 레이싱모델로 데뷔한 이후 2009년 CJ O 슈퍼레이스 시계인 레이싱모델, 2011년



한국타이어 전속 레이싱모델, 2012년 부산국제모터쇼 레이싱모델 등으로 꾸준한 활동을 펼쳤다. 또 종합격투기 로드 FC의 로드걸로 활약하기도 했다.

특히 주씨는 레이싱모델 사이에서 보면 볼수록 중독된다는 ‘MSG녀’로 불리면서 많은 팬들을 몰고 다니는 것으로도 유명했다.
경찰은 신호 위반으로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블랙박스 영상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다.
/영암=대성수기자 dss@kwangju.co.kr



5·18 정신계승 도보 순례 천주교 광주대교구 청년부원 300여명이 15일 5·18 정신을 계승하고 의미를 되새기기 위해 광주시 서구 쌍촌동 가톨릭평생교육원부터 5·18 민주광장까지 당시 격전지, 사적지 등을 돌아보는 도보 순례를 하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광주시 초대 감사위원장 개인정보 위반 혐의 수사

초대 광주시 감사위원회 위원장 성문국(56)씨가 경찰의 수사 선상에 올랐다.
광주서부경찰은 한국인터넷진흥원이 광주시 감사위원장인 성씨에 대해 수사의뢰를 해오에 따라 관련 사실을 조사 중이라고 15일 밝혔다.
인터넷진흥원은 성씨가 위원장으로 있는 시 감사위원회가 지난 3월 광주시 노조의 전국공무원노조 가입투표 직후, 광주시 각 실·과에 공문을 보내 노동조합비소득공제 내역을 공개 요구한 사실 등이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했는지 수사를 통해 밝혀달라고 지난달 요청했다.
앞서 광주시 공무원 노조 측은 국민신문고에 “노조 조직 전환 투표 과정에서 노조 가입 금지 대상자를 가려내고 압박하기 위해 소득공제 내역을 공개 요구하고 일부 내역을 통보받은 행위는 명백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성 위원장을 처벌해달라”는 취지의 글을 올렸다.
이 같은 광주시 노조의 요청은 행정자치부와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를 운영하는 등 개인정보보호 업무를 주관하는 인터넷진흥원을 거쳐 수사요리 형식으로 경찰에 접수됐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오인신고한 선장, 음주운항 들들

○--만취 상태에서 어선을 몰던 50대 선장이 취기 때문에 배에 타지도 않은 선원을 ‘해상에 추락했다’고 오인신고했다가 음주운항이 들들.
○--15일 목포해양경비안전서에 따르면 A호(4.95t)의 선장 안모(58)씨가 지난 13일 오후 6시10분께 영광군 계마항 인근 해상에서 선원 1명이 추락했다며 해경에 신고.
○--수색에 나선 해경은 2시간 만에 선원이 자택에 머물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는데, 해경은 “안씨가 혈중알코올농도 0.187% 상태에서 작업을 하려다가 술 기운 때문에 선원 탑승 여부를 착각한 것 같다”고 설명. /수포=김병관기자 dss6116@

<h3>4층 상가 원룸 매매</h3> <p>전대정문 모아 A.P.T 후문 코너자리</p> <h3>1층 (커피숍 입점)</h3> <h3>2층~3층 (고급 룸 8개)</h3> <p>4층 (주택)을 주택 (방 3개, 화장실 2개, 내부 깔끔한 화이트, 다용도실)</p> <h3>임대완료 정남향 코너자리</h3> <p>□ 월수익 → 480만 □ 매가 → 6억 8천만 (용 1억5천 보 1억5천) (실투자 3억 8천)</p> <p>010-6670-9800</p>	<h3>노대지구 3층 상가 건물매매</h3> <p>노대동 광주은행 코너자리</p> <p>◆ 토 251평, 건 431평</p> <p>◆ 상가밀집지역, 아파트 밀집지역</p> <p>1층 (상가 8칸) 2층 (상가 4칸) 3층 (원룸 8개, 투룸 5개)</p> <p>□ 보 1억6천, 월 1,360만 □ 보 3억 월 3,000만 ◆ 매가 38억</p> <p>010-7384-7800</p>	<h3>근린상가 오피스텔 매매</h3> <p>(소액투자 가능, 3천만~2억)</p> <p>□ 동구 수기동 제일오피스텔 → 6층 (45평) 울수리 천변로 전망 좋음 → 보증금 -1,000만, 월세 60만(용 5천) → 매가 1억 1천만</p> <p>□ 상무지구 수림 오피스텔 → 6층 (23평) 롯데마트앞, 상무나이트옆 → 보증금 500만, 월세 4만(용 1천 6백만) → 매가 8천 500만</p> <p>□ 상무지구 수림 오피스텔 → 6층 (19평) 롯데마트앞, 상무나이트옆 → 보증금 500만, 월 4만(용 2천 4백만) → 매가 7천 500만</p> <p>□ 서구 쌍촌동 대운파크빌 (빌라 원룸) /전세값으로 내집마련 → 2층 (11평) 운천역 1번출구에서 3분거리 → 보증금 200만 월 30만 (용 1천) → 매가 3천 5백만</p> <p>□ 광산구 월계동 첨단지구 (1층) 상가 → (40평) 1층 상가, 미용실, 식당, 프랜차이즈 추천 → 보증금 800만, 월 80만 (용 4천) → 매가 1억 5천만</p> <p>□ 전남 광양 광영동 상아 아파트 → (15평) 12층 - 전망 좋음, 주변 골프장, 아파트 밀집지역 → 보증금 200만, 월 25만 (전세 2천5백만 가능) → 매가 3천 5백만</p> <p>010-6834-4800</p>	<h3>법률경매</h3> <p>(특수물건 추천)</p> <p>□ 북구 삼각동 (6층 상가건물) → (토 1183평, 건 6780평) → 요양병원 추천, 주차 완비, 6차선 도로 접 → 삼각초등학교 부근, 아파트 단지 □ 감정가 170억 → 최저가 170억</p> <p>□ 서구 양동 (숙박 시설) → (토 114평, 건 424평) → 1층 (주거용,기운터) 2층~5층 (숙박시설 40개) → 광주은행 동측 인근, 약 10m 도로접 □ 감정가 10억 8천 → 최저가 4억 8천</p> <p>□ 서구 화정동 (6층 건물 나이트) → (토 800평, 건 2567평) → 광천 테미널 뒤편 위치 / 현 나이트클럽중 → (나이트 직영, 테미널 부근 투자 가치 추천) □ 감정가 130억 → 최저가 49억 7천</p> <p>□ 동구 동명동 → (토211평,건606평) (근린시설) → 1층 (소매점) 2층~6층 (오피스텔 룸) → 동명 교회 북측 인근, 4차선 도로접 □ 감정가 19억 5천 → 최저가 13억 7천</p> <p>□ 북구 매곡동 (4층 상가 상가건물) → (토 223평, 건 381평) → 1층 (식당) 2층~3층 (학원) 4층 (사무실) → 주변 아파트 단지, 4~5m 진입로, 주차완비 □ 감정가 12억 → 최저가 12억</p> <p>□ 북구 안암동 (5층 건물) → (토 66평, 건 194평) → 1층~5층 (사무실), 6차선 도로 접 □ 감정가 7억 4천 → 최저가 5억 9천</p>	<h3>경매교육</h3> <p>경매 이제는 대중화시대!!!</p> <p>실전 교육 듣고 바로 수익창출 가능</p> <p>□ 매주 수요일 (오전) □ 입학부터 임대, 매매, 개발기획까지 (원스톱 강의)</p> <p>☆ 경매 실전 교육 ☆ 바로 실전으로 수익창출 하실분 !! 특수물건, 유채권, 가압권채권, 경매인찰 등 실제 경험, 가장 중요한 실무교육 합니다.</p> <p>(주)대신경매 직원구합니다.</p> <p>부동산, 경매 배우실분. 부동산 자격증있으신분 부동산 경매 관심 있으신분 가족처럼 일하실분 환영합니다.</p> <p>010-6832-9700</p>
---	--	---	---	---